

소프트웨어의 글로벌화와 새로운 국제분업

지은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Globalization of Software and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Jee, Eun Hee

Korea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gency

ehjee@software.or.kr

요약

과거 제조업의 글로벌화에 이어 지식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세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국제분업화를 야기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임금 구조로 글로벌 기업들의 아웃소싱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글로벌 아웃소싱 모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1. 서론

SI는 시스템의 성능 수준 충족 등의 고객의 시스템적 최근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¹⁾ 시장은 '제조업의 글로벌화'에 이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세와 맞물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전략과 연계하여 일찍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인도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에서 성공을 하였고, 최근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체코, 브라질과 같은 신흥 IT 국가들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하드웨어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IT 강국이라는 성공신화를 이루었지만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글로벌화 부문에는 그 존재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1)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의 일부 기능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외부 서비스 기업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고,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기업의 운영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해외 기업(제3자 기업과 해외 자회사 모두 포함)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혹은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낮고 해외시장으로 수출은 IT 수출 규모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의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내수시장에만 머물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임금 구조와 영어 구사력 부족, 내수시장 집중 등으로 인해 오프쇼어링을 통한 성장모델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내부거래 시장의 존재, 시장 포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오프쇼어링(offshoring) 시장이 저비용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글로벌 아웃소싱 모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2. 글로벌 SW 아웃소싱 시장동향

1)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의 활성화 요인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자본, 인력,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오프쇼어 아웃소싱의 비중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이 증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발전과 같은 기술발전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고 모듈화하여 원격지에서도 전체 프로세스 중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는 금융 업무나 인사 업무를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급성장은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를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만을 두고 볼 때 인력부족은 50만 명에 달하고, 일본과 미국도 컴퓨터 서비스 인력이 상당수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IT 인력 부족현상은 몇몇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WTO, GATS 등 세계 무역자유화 등으로 국가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주변국이었던 인도,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2)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전략의 변화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용절감 요인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절감 요인은 미국과 후발 국가들 사이의 임금 격차에 기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이라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들이 시간의 제약없이 24X7 시간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하고, 지역 시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과 서비스로 커스터마이징하고, 노동자들과 설비들을 지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인도, 중국과 같이 오프쇼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아웃소싱은 저임금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자본투자(FDI)를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해외자본투자(FDI)는 대체로 글로벌 R&D센터 구축의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는 오프쇼어 대상 국가에게는 기술이전, 경영 스킬을 전수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 조세감면 혜택, 투자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오프쇼어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주된 요인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고품질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전락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오프쇼어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소싱의 방식도 일국 중심의 소싱(sourcing)이 아니라, 다수 국가와 다수의 기업으로 멀티소싱(multi-sourcing) 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소프트웨어 오프쇼어링의 대상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를 야기한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과거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단순개발 업무를 아웃소싱 하던 방식이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여, 최근에는 IT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BPO, KPO),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까지도 오프쇼어 국가로 아웃소싱되고 있다.

<표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오프쇼어 아웃소싱 영역

서비스 영역	주요 내용
IT Services	SW 유지보수 지원, IT 관리, HW 관리 지원, 개발 및 통합
Contact Centers	콜센터, 고객관계관리(CRM), 이메일 뉴스레터, 웹사이트 Q&A 등
Engineering/Technical Support Centers	기업의 내외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콜센터 및 기타 고객관리 방법론, 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비즈니스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통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s); 인사, 금융/회계업무(F&A);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SCM(공급망관리) 등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KPO)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 제공, 분석 기술이나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식 집약적인 업무 프로세스
Content Development & Management	디바이스, 인터넷, 모바일 기기, DVD, 멀티미디어용 콘텐츠 개발 및 관리
R&D Engineering	차세대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프로토타입(prototype) 구축,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 등

이처럼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오프쇼어링 되는 영역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전

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의 지형변화와 소프트웨어 부문의 시장성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먼저 오프쇼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가속화 되고 산업구조 자체도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식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활용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의 국제분업화에서 더 나아가, 지식집약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와 비즈니스의 핵심영역인 연구개발(R&D) 영역까지 글로벌 아웃소싱 되고 있어 그 야말로 '서비스의 글로벌화', '소프트웨어의 글로벌화'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의 성숙으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상당부분 확장되고, IT 관련 서비스 뿐 아니라, IT를 중심으로 한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초기 저임금 인력 풀을 중심으로 비용절감의 강점을 내세워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후발 국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품질향상과, 글로벌 딜리버리 모델(GDM)과 같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글로벌 기업과도 경쟁할만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3) 오프쇼어 SW 아웃소싱 시장의 지형변화

글로벌 경제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과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제조업의 글로벌화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IT 산업 또한 집적회로(IC), 컴퓨터 조립,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부품 등과 같은 분야는 35년 전부터 해외 국가로 아웃소싱 되어왔다.

최근 서비스 부문의 국제분업화 추세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소싱 또한 그 기원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IBM과 같은 대형 다국적 기업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경영을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R&D 센터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지화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처음으로 오프쇼어 아웃소싱으로 성공한 국가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현지화를 지원해온 이스라엘과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대표적인 오프쇼어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장을 주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미국과 유럽 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에서 오프쇼어 대상 국가로 선호하는 국가들은 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풀, IT 및 경제 인프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기업들의 품질 수준, 문화적, 지리적 인접성, 영어활용 역량,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측면에서 우수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인도는 비용절감의 효과와 서비스 품질 수준(인력의 숙련수준, 프로세스, 문화적 유사성, 언어역량 등)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국가로 꼽히고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보면 아일랜드, 캐나다, 인도 등이 우위에 있으나,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면 인도가 월등히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인도 중심의 글로벌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장이 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아웃소싱의 지형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저임금 인력으로 성공한 인도는 최근 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과거의 강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인도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의 추격으로 인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역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오프쇼어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을 토대로 유럽지역의 경우 체코 등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가,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새로운 오프쇼어 국가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글로벌 소싱의 목적이 단순히 비용절감의 목적이외의 전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지식 집약적 서비스(KPO)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도, 중국 등이 새로운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장의 대표적인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3. 주요 국가의 SW 오프쇼어링에 대한 대응

1) SW 오프쇼어링 시장에서 인도와 중국의 부상

최근 소프트웨어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변국이었던 인도, 중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인도, 중국은 글로벌 R&D 센터로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생산기지로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세는 신흥 IT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제 단순 개발업무에서 고부가가치 업무로 오프쇼어링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으며, 보다 고부가가치 직종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단순한 프로그래머보다 훨씬 더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업도 매년 20-25% 증대하고 있다. 인도의 3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Infosys, TCS, Wipro는 이미 종업원 수가 약 4만 명이상이 될 정도로 대규모 기업이 되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산업은 8000여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중 3/4 이상이 종업원 수가 50여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극소수의 기업만이 선진국들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에 비해 인도의 기업들은 대략 3000여개 정도이나, 이 중 종업원 수가 2000여명 이상인 기업이 15개나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은 제조업과 하드웨어 부문이 매우 발전하였으므로, 미래 수요가 높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인도에 아웃소싱하는 반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데 더 관심이 있다.

3)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육성 정책

인도와 중국은 모두 소프트웨어 및 기술역량의 발전이 오랫동안 정치, 행정, 산업 엘리트들의 목표가 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자원을 집중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부문에서 매우 다른 성장궤적을 가지고 성장하여 왔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메이저 기업과 노동자들의 자발적 혁신이 중심이 되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이 특징적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역량 집중이 오늘날의 성장기반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외국인투자(FDI) 유치로 통한 경제발전과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방식인 탑-다운(Top Down) 방식이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탑-다운(Top Down) 방식은 초기에는 수출지향적인 제조업과 인프라에 집중하였고, 이제는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

소싱 산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도의 SW 아웃소싱 발전 정책과 기업의 역할

오늘날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초기의 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 정책과 인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활동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인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① IT 기업에 대한 관세 및 소득세 감면, ②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③ 국제인증 획득 유도, ④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구축 등의 인프라 확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도는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적극 육성하였다. 둘째, 외국인 투자 관련 장구를 일원화하고, IT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정부 사전 승인 없이도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자금 형성에 초석을 다졌다. 셋째, 국제 표준 또는 국제 소프트웨어 기술 인증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대한 역량을 객관화하는 데도 힘썼다. 넷째, 정부는 인도의 소프트웨어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특구(Special Economic Zones)와 소프트웨어 기술 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s)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선진적인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였다. 실제로 인도 소프트웨어의 수출 규모의 80% 이상이 소프트웨어 파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장 큰 저해 요소인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해 지적재산권 법을 개정, 엄격히 시행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줄이고, 저작권 보호에 힘쓰으로써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인도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 것은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혁신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Infosys, TCS, Wipro와 같은 선두 기업들의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성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인도 기업들의 프로세스 혁신 전략은 첫째, 오프쇼어 아웃소싱 서비스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프로세스의 모듈화와 표준화 추진 둘째, 원격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현장(on shore)지원과 원격지(offshore) 지원간의 조화로운 배치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딜리버리 모델(Global Delivery Model)의 적용 셋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

스 프로세스에서 도요타의 린(Lean) 방식과 소프트웨어 공장모델(Software Factory)을 적용하여 글로벌 아웃소싱 서비스의 최적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혁신전략으로 특징화 할 수 있다.

중국의 SW 아웃소싱 산업육성 정책

중국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정책은 일찍이 하드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용하였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는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향후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신 글로벌 기업의 선진 기술을 이전 가능하도록 친기업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는 저비용의 강점을 활용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단계적으로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미래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오프쇼어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2006년 중국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와 MOC(Ministry of Commerce)는 소프트웨어 수출 및 아웃소싱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내 11개 도시를 아웃소싱 기지 도시로 구축하고, 아웃소싱 국가로서 중국을 브랜드화 하는 데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MOFCOM은 중국을 세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10-100-1000'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것은 10개(나중에는 11개) 도시를 오프쇼어 서비스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핵심기지를 구축하고, 100개의 다국적 기업들의 오프쇼어 아웃소싱 서비스를 중국으로 유치하고, 1000개 이상의 중국 아웃소싱 기업을 육성하여, 2010년까지 오프쇼어 서비스 수출의 목표를 두 배 이상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인력양성, 국제품질인증 지원, 수출신용대출, 수출정보 제공, 지적재산권보호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 활성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Neusoft, SinoCom Software, Dalian Hi-Think Computer Technology, Dalian Hisoft, Chinasoft International, Insigma Technology와 같이 해외 아웃소싱 전문 기업들이 생겨나고, 아웃소싱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로 글로벌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규모의 경제효과는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아웃소싱을 위한 상호간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간 연계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2007년 9월 제 1차 Nanjing 소프트웨어 전시회에서 중국 정부는 전자정보산업발전기금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아웃소싱 상호지원 플랫폼(Software and Information Service Outsourcing Communal Supporting Platform)"을 구축하였다. 이 플랫폼은 아웃소싱 기지 도시에서 상호 기술 지원, 지적재산권 서비스, 인력 교육 서비스, 국가 브랜드 구축, 시장 확장 등을 지원하고, 자원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국내 다국적기업 IT 연구개발(R&D)센터 유치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HC, Beyondsoft, Neusoft, Sinocom 등 일부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해외 고객으로부터 아웃소싱 수요를 받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중국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은 규모가 작고 국제 경험이 부족하여, 직접 해외로부터 오더를 받을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내 설치된 다국적기업의 R&D센터는 주요한 계약체결의 경로가 되고 있다.

4. SW의 글로벌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최근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 의하면, 2008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 중의 하나로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을 꼽고 있다. 그것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제조업의 국제분업화에

이 서비스 부문에서도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시장은 시장 확대의 기회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창출,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들의 선진기술 전수받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해외자본투자(FDI)는 주로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를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는 자본을 확보한다는 차원 뿐 아니라, 선진 기술, 노하우, 관리역량(전문지식),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우수한 기업경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지식서비스화, 고부가가치화로 이끌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국내 경제 인프라는 부족하나, 양질의 저임금 인력 풀을 보유한 인도는 일찍부터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쇼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으며, 대규모 인력 풀과 강력한 제조부문 역량, 중국 내수시장의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대표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지'라는 국가 브랜드 확보를 목표로 정부 주도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와 중국의 사례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정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의 강점과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에 적합한 산업육성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우수한 IT 인프라와 제품 경쟁력을 지닌 한국은 미래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질 지식서비스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아웃소싱 부문에 집중하여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임금 구조로서 후진국의 아웃소싱모델과 동일시 될 수 없는 한국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변화하는 오프쇼어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아웃소싱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시키고, 해외 기업의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및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장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과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언어역량, 전문지식, 융합 IT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T.Kearney, 2007, 'Offshoring for Long-Term'.
ACM, 2007, 「Globalization and Offshoring of Software」.
Booz Allen Hamilton, 2006, 'Outsourcing for Virtuosos'.
NASSCOM, 2007, 'Tracing China's IT Software and Services Industry Evolution'.
NASSCOM, 2008, 「Strategic Review 2008」.
TCS, 2007, 'Doing Business Japan'.
Research and Markets, 2007, 「Opportunities in Chinese Software Industry」.
Tholons, 2006, 'Country Competitiveness and Centers of Excellence'.
Tholons, 2007, 'China, The next services globalization Destination?'.
KIPA, 2006, 「중국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산업 현황 분석」.